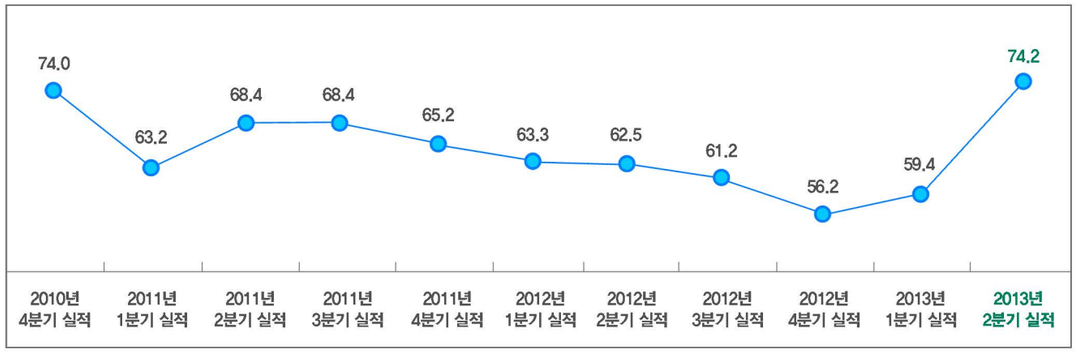
Ⅰ. 디자인산업 경기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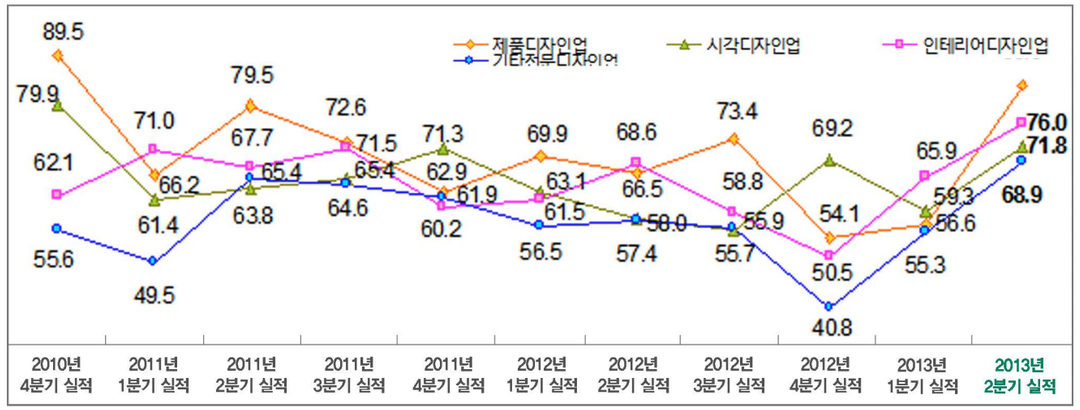
1. 2013년 2/4분기 디자인산업 경기 현황

디자인산업 경기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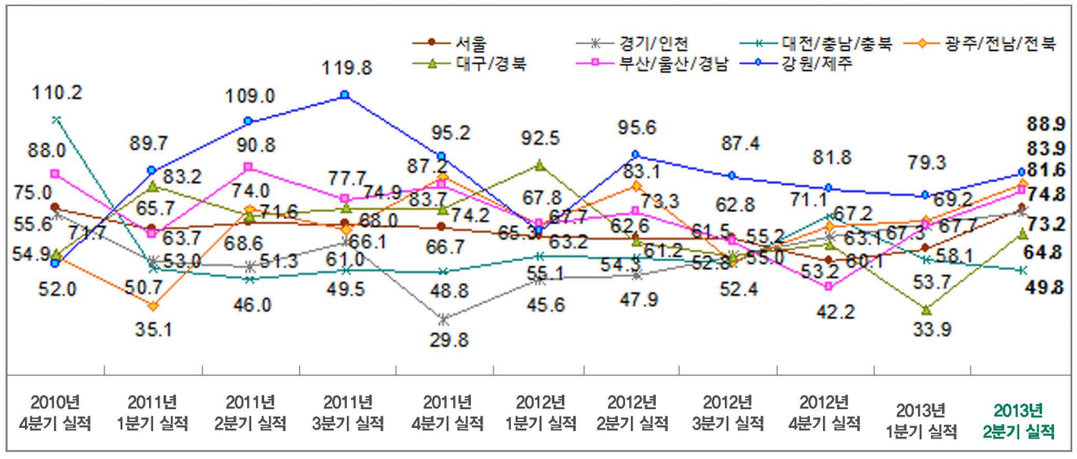
- (경기전반) 전문디자인업의 2/4분기 경기지수(D-BSI)는 74.2p로 전분기 59.4p 보다 14.8p 상승하였고, 전년 동분기 62.5p 대비 11.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업종별 디자인산업 경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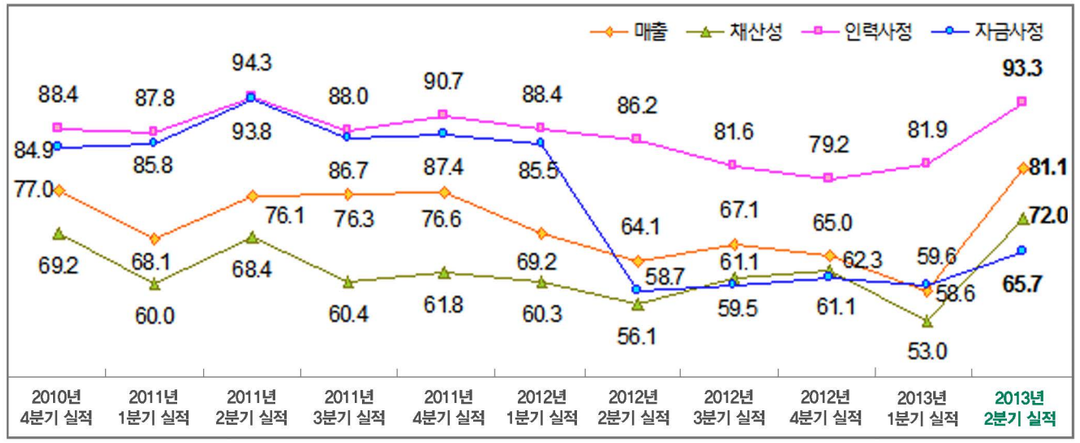
- (제품디자인업) 제품디자인업은 83.5p로 전분기 56.6p 대비 26.9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66.5p 대비 17.0p 상승하였음
- (시각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은 71.8p로 전분기 59.3p 대비 12.5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58.0p 대비 13.8p 상승하였음
- (인테리어디자인업) 인테리어디자인업은 76.0p로 전분기 65.9p 대비 10.1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68.6p 대비 7.4p 상승하였음
- (기타전문디자인업) 기타전문디자인업은 68.9p로 전분기 55.3p 대비 13.6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57.4p 대비 11.5p 상승하였음

지역별 디자인산업 경기 현황



- (서울권) 서울지역의 경기지수는 74.8p로 전분기 58.1p 대비 16.7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62.6p 대비 12.2p 상승하였음
- (경인권) 경기/인천지역의 경기지수는 73.2p로 전분기 67.7p 대비 5.5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47.9p 대비 25.3p 상승하였음
- (충청권) 대전/충남/충북지역의 경기지수는 49.8p로 전분기 53.7p 대비 -3.9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54.3p 대비 -4.5p 하락하였음
- (호남권) 광주/전남/전북지역의 경기지수는 83.9p로 전분기 69.2p 대비 14.7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83.1p 대비 0.8p 상승하였음
- (대경권) 대구/경북지역의 경기지수는 64.8p로 전분기 33.9p 대비 30.9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61.2p 대비 3.6p 상승하였음
- (부울경권)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경기지수는 81.6p로 전분기 67.3p 대비 14.3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73.3p 대비 8.3p 상승하였음
- (기타권) 강원/제주지역의 경기지수는 88.9p로 전분기 79.3p 대비 9.6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95.6p 대비 -6.7p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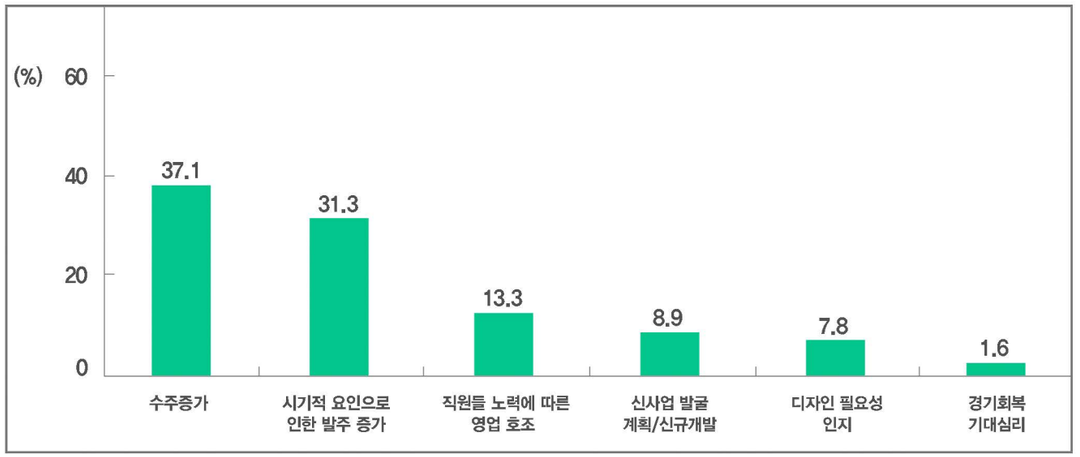
디자인산업 경기 종합



- (매출) 매출지수는 81.1p로 전분기 58.6p 대비 22.5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64.1p 대비 11.7p 상승하였음
- (채산성) 채산성지수는 72.0p로 전분기 53.0p 대비 19.0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56.1p 대비 15.9p 상승하였음
- (인력사정) 인력사정지수는 93.3p로 전분기 81.9p 대비 11.4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86.2p 대비 7.1p 상승하였음
- (자금사정) 자금사정지수는 65.7p로 전분기 59.6p 대비 6.1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58.7p 대비 7.0p 상승하였음

※ 2012년 1분기 이전까지는 마케팅, 재무, 인적자원, 투자에 대한 경기현황을 조사함
2012년 2분기 이후 각각 매출, 채산성, 인력사정, 자금사정으로 조정됨

2분기 경기 호전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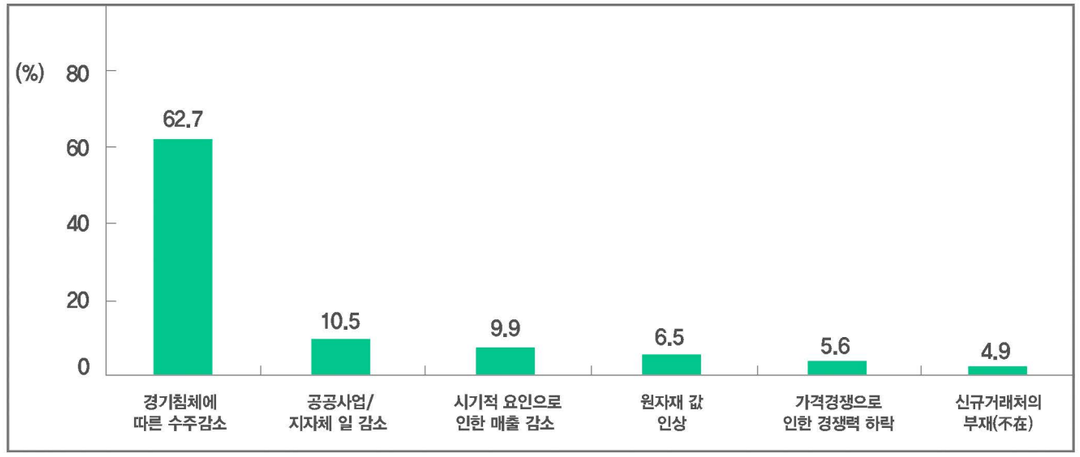


- 2분기 경기 호전 이유로 '수주증가'(37.1%)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시기적 요인으로 인한 발주증가'(31.3%), '직원들 노력에 따른 영업 호조'(13.3%), '신사업 발굴 계획/ 신규개발'(8.9%), '디자인 필요성 인지'(7.8%), '경기회복 기대심리'(1.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수주증가' 는 기타전문디자인(41.0%) 업체에서 더욱 높았고, '시기적 요인으로 인한 발주 증가'는 제품디자인(40.3%) 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수주증가	시기적 요인으로 인한 발주 증가	직원들 노력에 따른 영업 호조	신사업 발굴 계획/신규개발	디자인 필요성 인지	경기회복 기대심리
전체		37.1	31.3	13.3	8.9	7.8	1.6
업종	제품	32.9	40.3	8.0	9.9	7.0	1.9
	시각	37.7	25.7	14.6	10.9	11.1	0.0
	인테리어	40.8	26.0	17.4	7.8	3.9	4.1
	기타전문디자인	41.0	34.8	16.9	0.0	7.3	0.0
규모	9인 이하	37.9	29.0	15.8	7.2	8.1	1.9
	10인 이상	33.5	41.3	2.3	16.3	6.6	0.0
권역별	서울	46.4	31.9	7.5	6.4	7.7	0.0
	경기/인천	32.7	36.0	25.3	0.0	6.0	0.0
	대전/충북/충남	21.0	36.9	21.0	21.0	0.0	0.0
	광주/전북/전남	11.2	18.1	22.3	26.4	12.9	9.0
	대구/경북	13.8	0.0	45.4	40.9	0.0	0.0
	부산/울산/경남	17.9	38.5	17.2	0.0	15.7	10.7
	강원/제주	29.6	36.5	0.0	33.9	0.0	0.0

2분기 경기 악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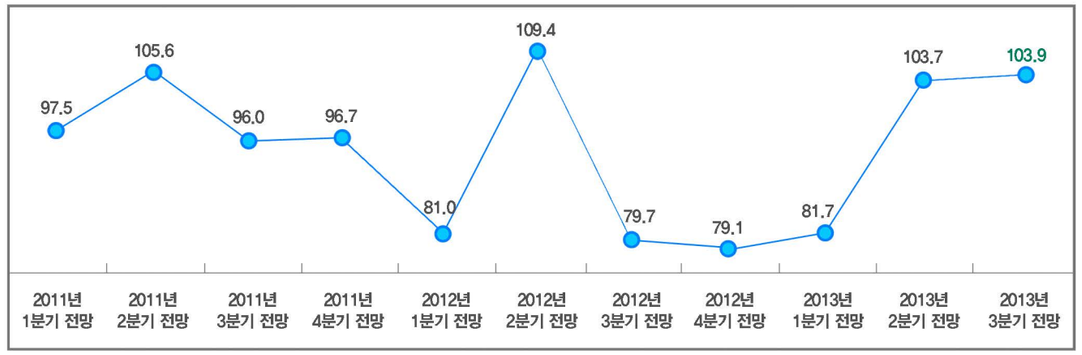
■ 2분기 경기 악화 이유로 '경기침체에 따른 수주감소'(62.7%)가 가장 많이 꼽혔고, 다음은 '공공사업/지자체 일 감소'(10.5%)으로 나타남. 이어 '시기적요인으로 인한 매출감소'(9.9%) '원자재 값 인상'(6.5%), '가격경쟁으로 인한 경쟁력 하락'(5.6%), '신규거래처의 부재'(4.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대부분의 계층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수주감소' 응답 비율이 높은 가운데, 기타전문디자인(68.3) 인테리어(66.1%) 업종에서 더욱 높게 나타남

		경기침체에 따른 수주감소	공공사업/ 지자체 일 감소	시기적 요인으로 인한 매출 감소	원자재 값 인상	가격경쟁으로 인한 경쟁력 하락	신규거래처의 부재(不在)
전체		62.7	10.5	9.9	6.5	5.6	4.9
업종	제품	61.2	8.3	9.7	9.0	2.5	9.3
	시각	59.0	8.8	11.7	8.6	6.0	5.9
	인테리어	66.1	10.2	7.5	5.0	8.9	2.4
	기타전문디자인	68.3	17.3	9.0	0.5	4.6	0.3
규모	9인 이하	63.7	11.3	9.4	6.2	5.5	4.0
	10인 이상	50.1	0.0	16.2	10.0	7.0	16.7
권역별	서울	67.6	8.1	6.9	4.5	6.2	6.7
	경기/인천	47.7	18.3	17.7	13.8	0.0	2.5
	대전/충북/충남	59.4	11.4	16.7	5.6	3.3	3.6
	광주/전북/전남	49.4	17.1	0.0	14.2	19.3	0.0
	대구/경북	67.9	11.0	13.3	7.8	0.0	0.0
	부산/울산/경남	53.6	4.6	21.0	5.8	10.4	4.6
	강원/제주	73.4	26.6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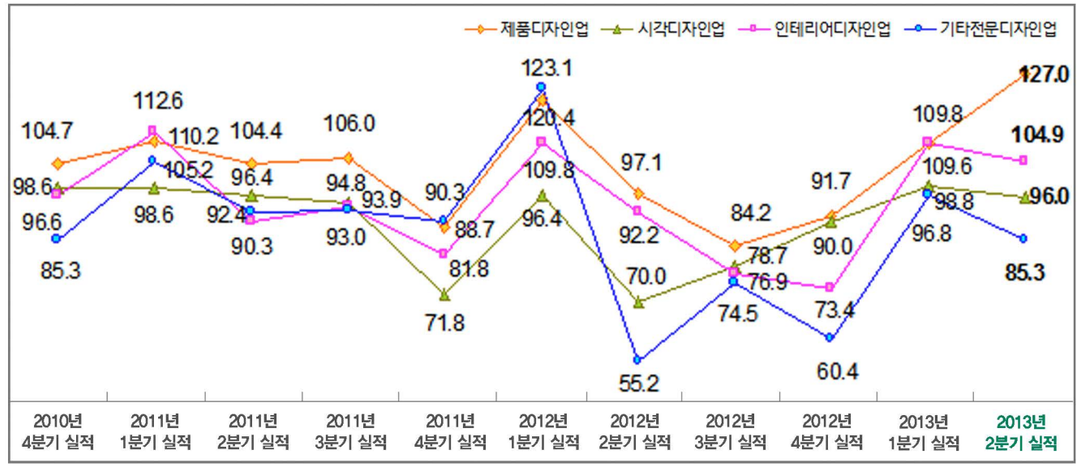
2. 2013년 3/4분기 디자인산업 경기 전망

디자인산업 경기 전망 종합



■ (경기전반) 전문디자인업의 2013년 3/4분기 경기전망지수(D-BSI)는 103.9p로 전분기 103.7p 보다 0.2p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분기 79.7p 대비 24.2p 상승하였음

업종별 디자인산업 경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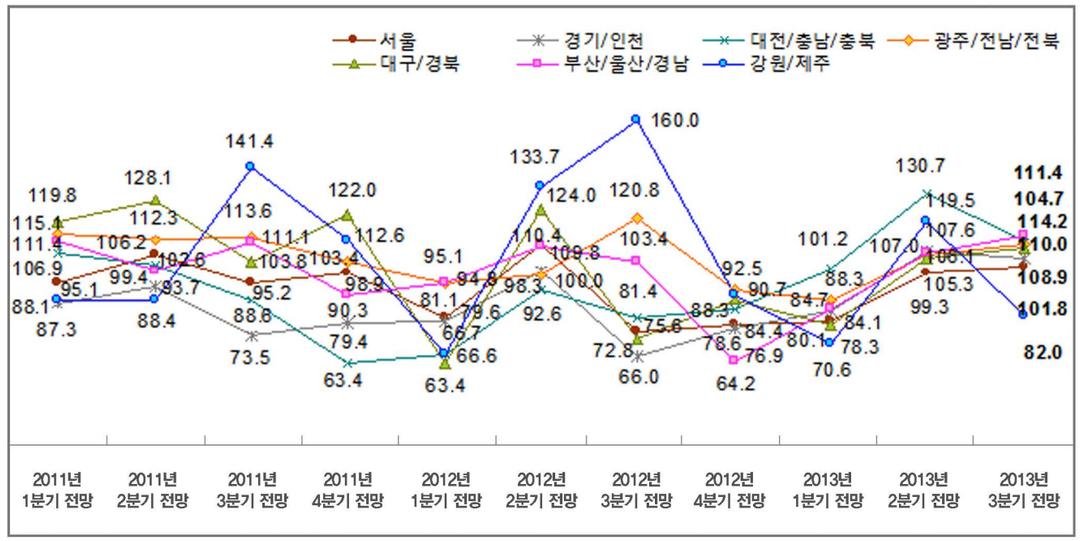
■ (제품디자인업) 제품디자인업은 127.0p로 전분기 109.6p 대비 17.4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97.1p 대비 29.9p 상승하였음

■ (시각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은 96.0p로 전분기 98.8p 대비 -2.8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70.0p 대비 26.0p 상승하였음

■ (인테리어디자인업) 인테리어디자인업은 104.9p로 전분기 109.8p 대비 -4.9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92.2p 대비 12.7p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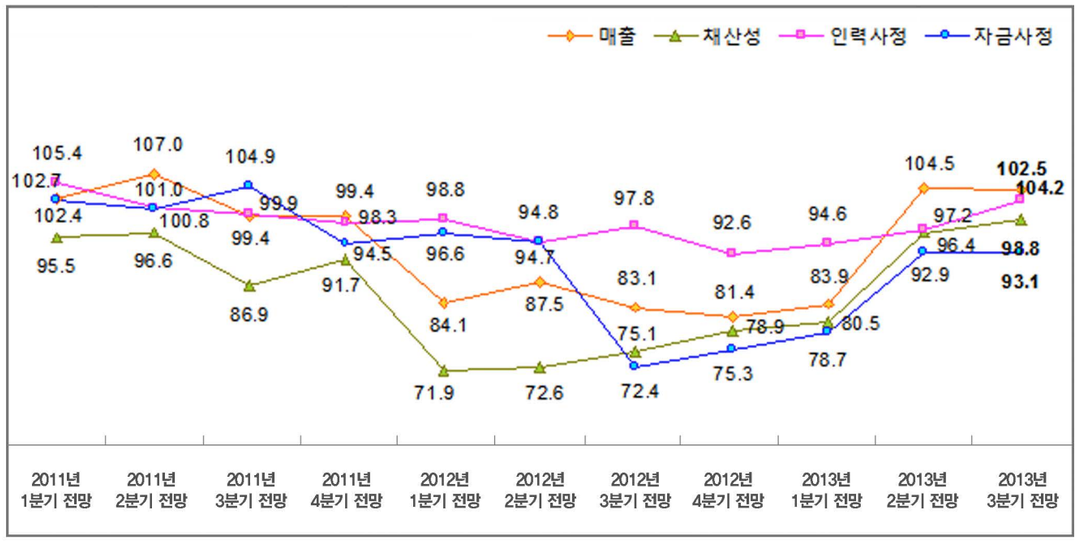
■ (기타전문디자인업) 기타전문디자인업디자인업은 85.3p로 전분기 96.8p 대비 -11.5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55.2p 대비 30.1p 상승하였음

지역별 디자인산업 경기 전망



- (서울권) 서울지역의 경기지수는 101.8p로 전분기 99.3p 대비 2.5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75.6p 대비 26.2p 상승하였음
- (경인권) 경기/인천지역의 경기지수는 104.7p로 전분기 107.6p 대비 −2.9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66.0p 대비 38.7p 상승하였음
- (충청권) 대전/충남/충북지역의 경기지수는 111.4p로 전분기 130.7p 대비 −19.3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81.4p 대비 30.0p 상승하였음
- (호남권) 광주/전남/전북지역의 경기지수는 110.0p로 전분기 106.1p 대비 3.9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120.8p 대비 −10.8p 하락하였음
- (대경권) 대구/경북지역의 경기지수는 108.9p로 전분기 105.3p 대비 3.6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72.8p 대비 36.7p 상승하였음
- (부울경권)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경기지수는114.2p로 전분기 107.0p 대비 7.2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103.4p 대비 10.8p 상승하였음
- (기타권) 강원/제주지역의 경기지수는 82.0p로 전분기 119.5p 대비 −37.5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160.0p 대비 −78.0p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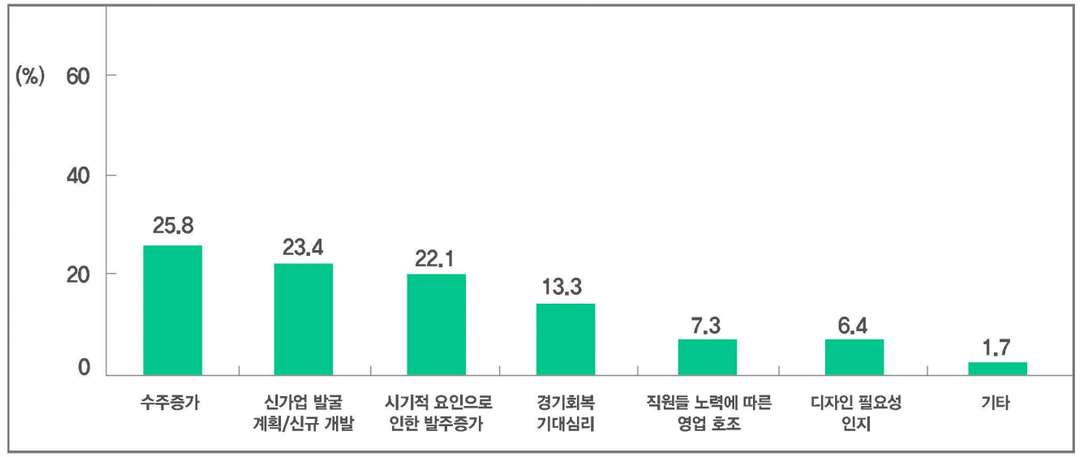
경영부문별 디자인산업 경기 전망



- (매출) 매출지수는 104.2p로 전분기 104.5p 대비 −0.3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83.1p 대비 21.1p 상승하였음
- (채산성) 채산성지수는 98.8p로 전분기 96.4p 대비 2.4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75.1p 대비 23.7p 상승하였음
- (인력사정) 인력사정지수는 102.5p로 전분기 97.2p 대비 5.3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97.8p 대비 4.7p 상승하였음
- (자금사정) 자금사정지수는 93.1p로 전분기 92.9p 대비 0.2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72.4p 대비 20.7p 상승하였음

※ 2012년 1분기 이전까지는 마케팅, 재무, 인적자원, 투자에 대한 경기전망을 조사함
2012년 2분기 이후 각각 매출, 채산성, 인력사정, 자금사정으로 조정됨

3분기 경기전망 호전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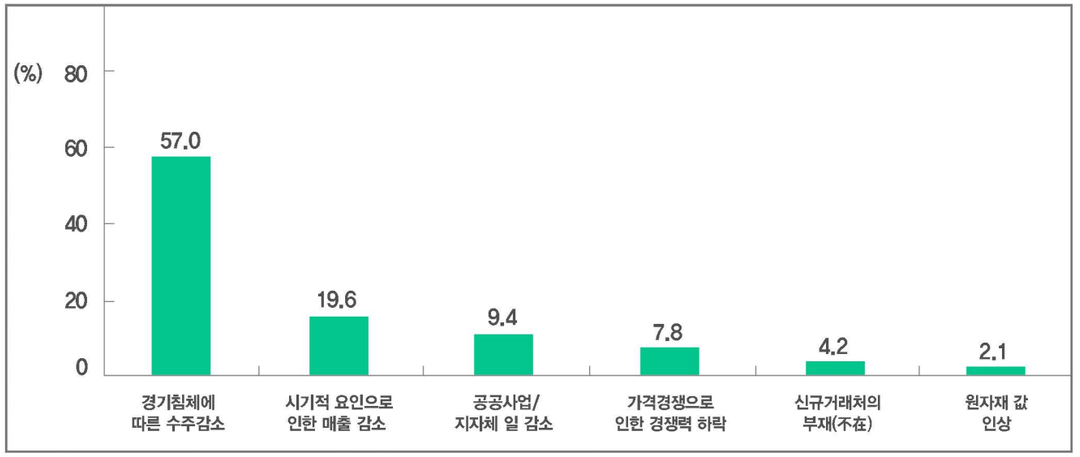


■ 3분기 경기전망 호전 이유로 '수주증가'(25.8%)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신사업 발굴 계획/신규개발'(23.4%), '시기적 요인으로 인한 발주증가'(22.1%) 순이었음

› '수주증가'는 인테리어디자인(29.5%), 부산/울산/경남(47.2%) 소재 업체에서, '신사업 발굴 계획/신규개발'은 제품디자인(25.2%), 기타전문디자인(25.0%)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수주증가	신사업 발굴 계획/신규개발	시기적 요인으로 인한 발주 증가	경기회복 기대심리	직원들 노력에 따른 영업 호조	디자인 필요성 인지	기타
전체		25.8	23.4	22.1	13.3	7.3	6.4	1.7
업종	제품	25.7	25.2	27.2	13.4	2.8	5.6	0.0
	시각	24.8	22.8	16.7	15.2	9.0	6.2	5.3
	인테리어	29.5	20.4	17.3	12.1	12.2	8.4	0.0
	기타전문디자인	21.6	25.0	28.7	10.8	7.9	5.0	1.1
규모	9인 이하	27.1	22.2	22.7	14.5	4.8	6.7	2.1
	10인 이상	19.8	28.9	19.1	8.1	19.2	4.9	0.0
권역별	서울	26.9	27.0	20.3	13.5	8.6	3.7	0.0
	경기/인천	19.4	18.6	21.5	6.7	6.3	15.6	11.9
	대전/충북/충남	29.0	14.5	29.4	20.1	0.0	7.1	0.0
	광주/전북/전남	11.7	27.2	14.8	16.4	11.5	16.6	1.7
	대구/경북	9.3	21.1	40.7	8.6	11.7	8.6	0.0
	부산/울산/경남	47.2	14.2	17.4	21.2	0.0	0.0	0.0
	강원/제주	45.0	0.0	55.0	0.0	0.0	0.0	0.0

3분기 경기전망 악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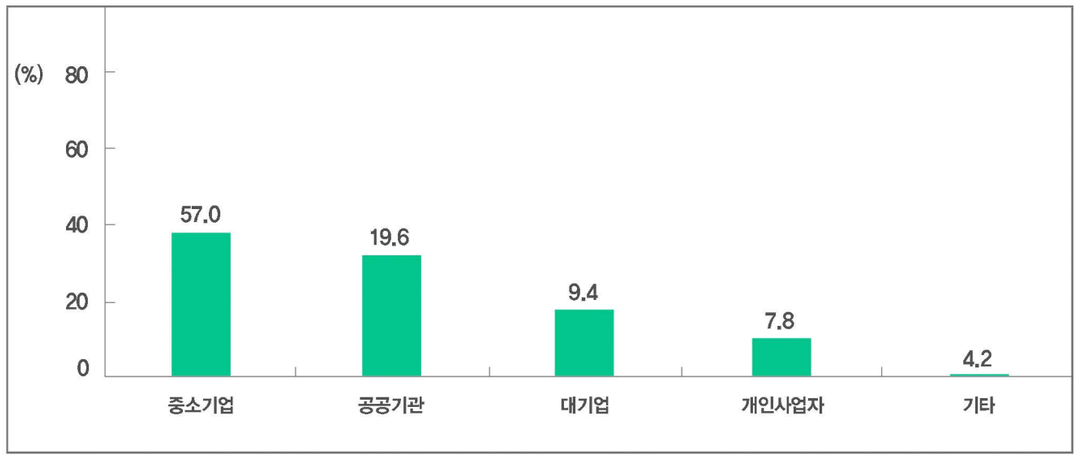
■ 3분기 경기전망 악화 이유로 '경기침체에 따른 수주감소'(57.0%)와 '시기적 요인으로 인한 매출 감소'(19.6%)가 가장 많이 꼽혔음. 이어 '공공사업/지자체 일 감소'(9.4%), '가격경쟁으로 인한 경쟁력 하락'(7.8%), '신규거래처의 부재(不在)'(4.2%), '원자재 값 인상'(2.1%) 순으로 높았음

› 대부분의 계층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수주감소'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인테리어디자인(68.6%) 대전/충북/충남(80.9%) 소재 업체에서 더욱 높게 나타남

		경기침체에 따른 수주감소	시기적 요인으로 인한 매출 감소	공공사업/지자체 일 감소	가격경쟁으로 인한 경쟁력 하락	신규거래처의 부재(不在)	원자재 값 인상
전체		57.0	19.6	9.4	7.8	4.2	2.1
업종	제품	49.9	12.4	24.9	4.7	6.7	1.4
	시각	50.2	25.4	3.0	10.8	7.8	2.8
	인테리어	68.6	14.8	11.2	2.1	0.0	3.4
	기타전문디자인	63.2	20.1	6.0	10.7	0.0	0.0
규모	9인 이하	58.0	18.1	9.4	8.2	4.4	1.9
	10인 이상	40.3	46.6	8.5	0.0	0.0	4.6
권역별	서울	58.8	19.3	6.3	8.1	5.4	2.2
	경기/인천	58.6	26.7	11.2	3.5	0.0	0.0
	대전/충북/충남	80.9	9.3	9.8	0.0	0.0	0.0
	광주/전북/전남	42.3	6.8	14.4	13.6	12.3	10.6
	대구/경북	71.0	13.2	15.8	0.0	0.0	0.0
	부산/울산/경남	36.8	24.1	12.0	27.1	0.0	0.0
	강원/제주	17.8	44.1	38.1	0.0	0.0	0.0

3. 전문디자인기업 영업현황

주요 거래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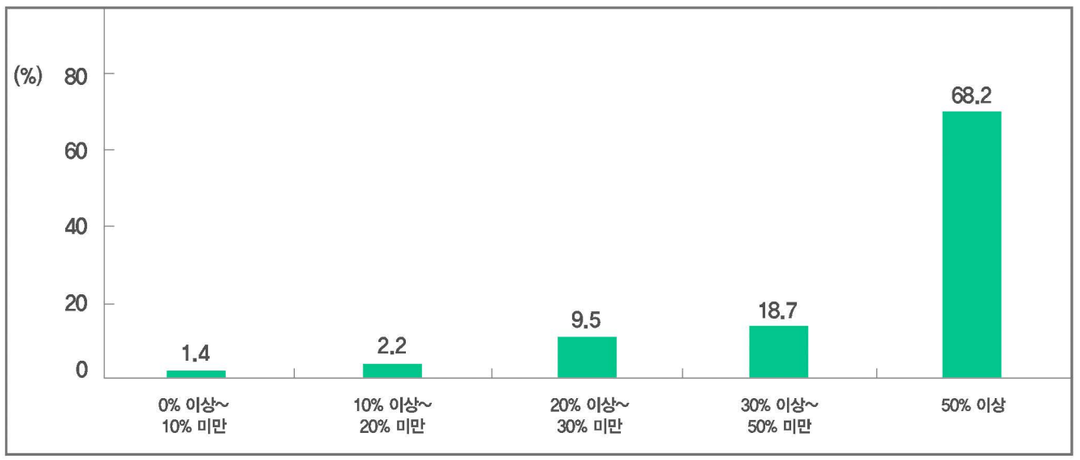


■ 주요 거래 대상으로는 '중소기업'(39.4%)과 '공공기관'(31.1%)이 가장 많이 꼽혔음. 이어 '대기업'(18.0%), '개인사업자'(11.2%) 순으로 높았음

› '중소기업'은 제품디자인(54.3%), 시각디자인(40.9%), 그리고 기타전문디자인(40.4%) 업종에서 높게 나타남

		중소기업	공공기관	대기업	개인사업자	기타
전체		39.4	31.1	18.0	11.2	0.3
업종	제품	54.3	24.9	13.1	7.8	0.0
	시각	40.9	30.8	21.4	5.9	1.0
	인테리어	18.5	44.1	25.2	12.1	0.0
	기타전문디자인	40.4	24.2	9.0	26.4	0.0
규모	9인 이하	41.6	30.0	15.6	12.4	0.4
	10인 이상	21.3	39.9	37.4	1.4	0.0
권역별	서울	42.9	20.1	24.8	12.0	0.3
	경기/인천	33.1	54.6	7.0	5.3	0.0
	대전/충북/충남	26.7	49.6	8.5	12.0	3.3
	광주/전북/전남	27.2	56.6	5.4	10.7	0.0
	대구/경북	52.6	21.3	8.0	18.2	0.0
	부산/울산/경남	35.6	53.1	5.3	6.0	0.0
	강원/제주	14.5	56.2	4.4	24.8	0.0

주요 거래 대상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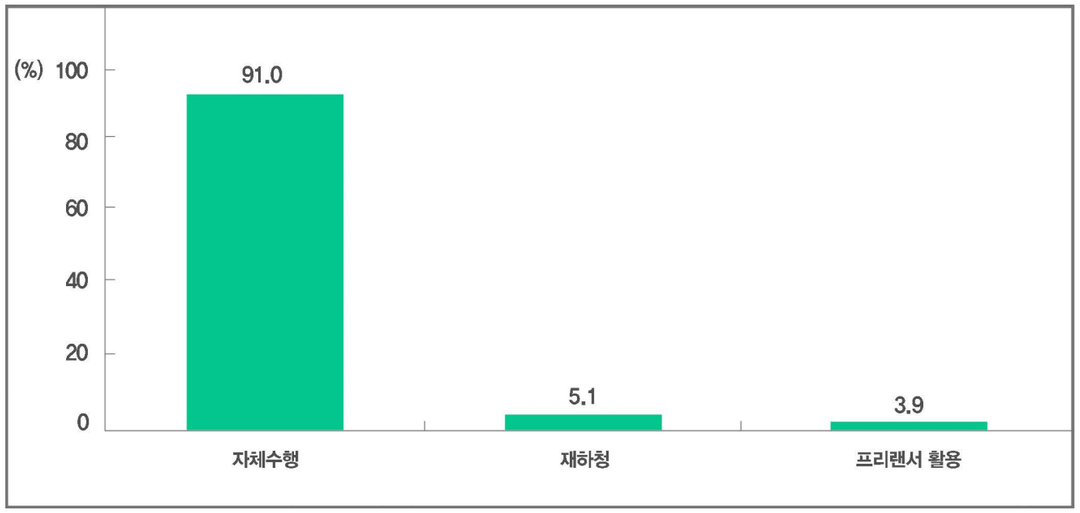


■ 주요 거래 대상의 매출 비중으로는 '50% 이상'(68.2%)이 가장 많이 꼽혔음. 이어 '30% 이상~50% 미만'(18.7%) 순으로 높았음

› '50% 이상'은 모든 업종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부산/울산/경남은 79.1%로 높았음

		0%이상~ 10% 미만	10%이상~ 20% 미만	20%이상~ 30% 미만	30%이상~ 50% 미만	50%이상~
전체		1.4	22	9.5	18.7	68.2
업종	제품	2.3	3.5	10.3	14.4	69.5
	시각	0.4	3.0	10.0	21.0	65.6
	인테리어	2.8	10	9.2	16.4	70.7
	기타전문디자인	0.3	0.0	7.8	23.3	68.7
규모	9인 이하	1.6	23	9.1	18.4	68.7
	10인 이상	0.0	13	13.3	21.1	64.3
권역별	서울	1.2	16	10.9	17.6	68.7
	경기/인천	2.0	5.2	7.8	16.7	68.3
	대전/충북/충남	0.0	20	3.3	23.8	70.9
	광주/전북/전남	3.2	7.2	13.9	16.3	59.5
	대구/경북	0.0	0.0	10.8	33.4	55.8
	부산/울산/경남	1.9	0.0	3.7	15.3	79.1
	강원/제주	4.4	0.0	0.0	32.2	63.4

주된 용역 수행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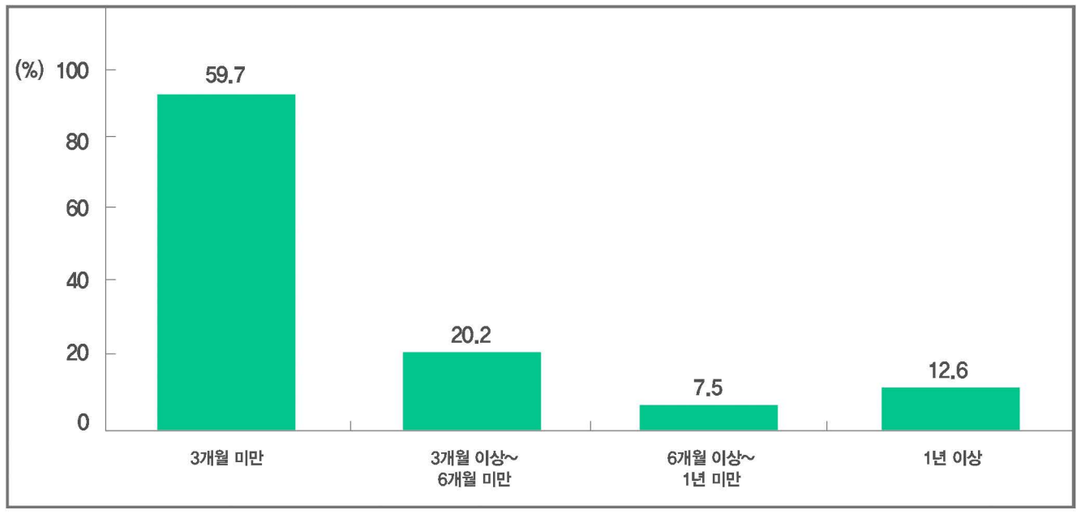


■ 주된 용역 수행 방식으로는 '자체수행'(91.0%)이 가장 많이 꼽혔음

› '자체수행'은 모든 업종, 규모, 권역에서 높게 나타남. 특히 제품디자인이 95.4%, 시각디자인이 94.6%로 높게 나타남

		자체수행	재하청	프리랜서 활용
전체		91.0	5.1	3.9
업종	제품	95.4	2.6	1.9
	시각	94.6	3.0	2.3
	인테리어	86.5	8.9	4.6
	기타전문디자인	82.4	8.4	9.2
규모	9인 이하	90.7	5.2	4.2
	10인 이상	93.6	4.8	1.6
권역별	서울	90.2	5.7	4.1
	경기/인천	93.3	4.1	2.6
	대전/충북/충남	92.7	3.3	4.0
	광주/전북/전남	100.0	0.0	0.0
	대구/경북	95.7	0.0	4.3
	부산/울산/경남	85.8	6.6	7.6
	강원/제주	81.7	18.3	0.0

평균 용역 수행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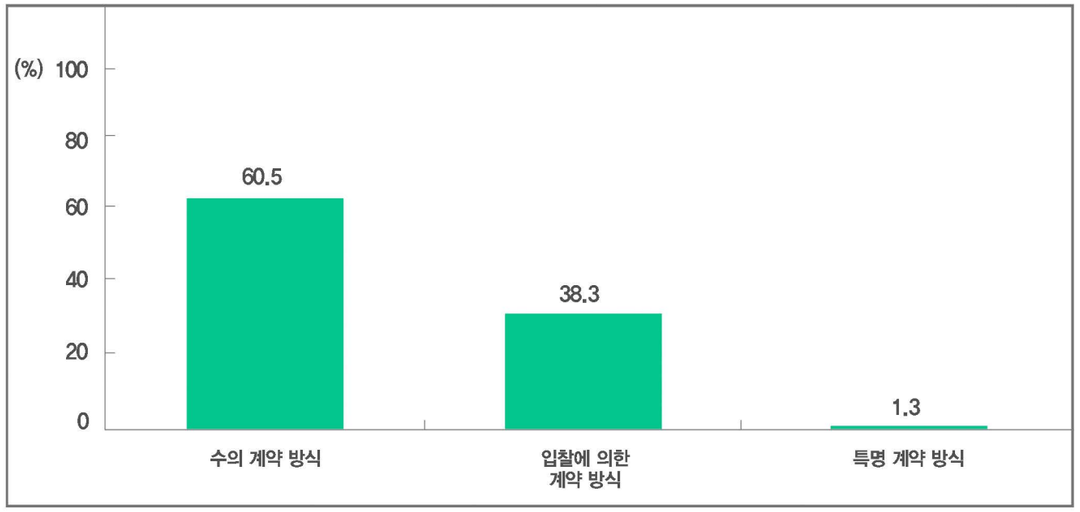


■ 평균 용역 수행 기간으로는 '3개월 미만'(59.7%)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20.2%)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3개월 미만'은 인테리어디자인(69.0%)과, 부산/울산/경남(73.5%) 소재 업체가 가장 높게 나타남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전체		59.7	20.2	7.5	12.6
업종	제품	61.4	21.7	8.2	8.7
	시각	60.6	22.3	8.3	8.8
	인테리어	69.0	17.3	8.2	5.6
	기타전문디자인	43.1	17.1	4.0	35.9
규모	9인 이하	62.7	18.7	5.8	12.7
	10인 이상	36.0	31.8	20.9	11.2
권역별	서울	57.7	18.9	7.2	16.3
	경기/인천	58.1	20.1	11.6	10.2
	대전/충북/충남	64.1	25.2	5.5	5.3
	광주/전북/전남	51.9	40.9	7.2	0.0
	대구/경북	72.8	16.4	4.6	6.1
	부산/울산/경남	73.5	16.6	3.9	5.9
	강원/제주	62.8	18.9	17.5	0.8

계약 체결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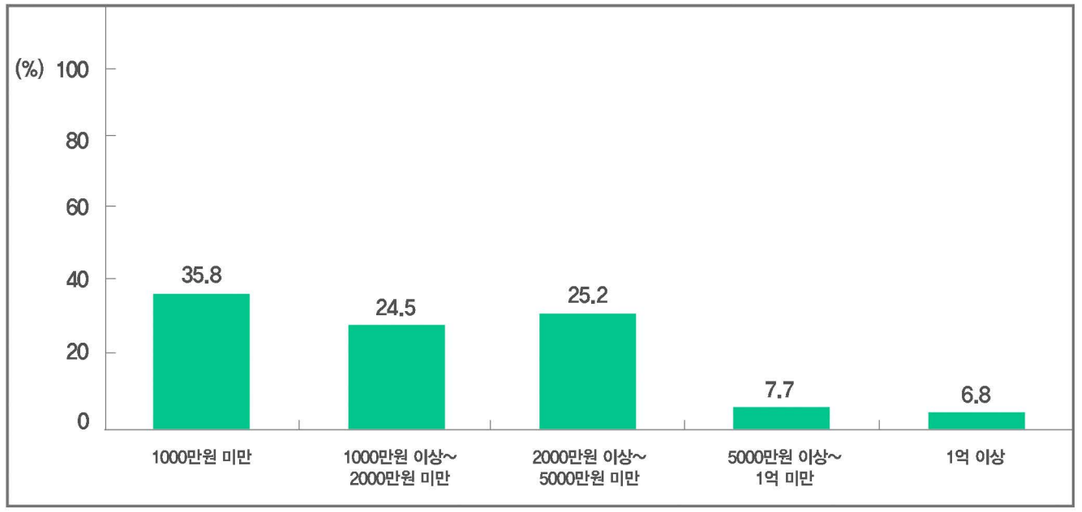


■ 계약 체결 방식으로는 '수의 계약 방식'(60.5%)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입찰에 의한 계약 방식'(38.3%)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수의 계약 방식'은 시각디자인(69.1%)과, 대전/충북/충남(71.7%) 소재 업체가 가장 높게 나타남

		수의 계약 방식	입찰에 의한 계약 방식	특명 계약 방식
전체		60.5	38.3	1.3
업종	제품	67.6	31.4	1.0
	시각	69.1	28.0	2.9
	인테리어	39.2	60.8	0.0
	기타전문디자인	58.9	41.1	0.0
규모	9인 이하	63.4	35.2	1.4
	10인 이상	36.8	62.9	0.3
권역별	서울	58.9	39.5	1.6
	경기/인천	61.5	38.5	0.0
	대전/충북/충남	71.7	28.3	0.0
	광주/전북/전남	65.3	34.0	0.7
	대구/경북	65.4	34.6	0.0
	부산/울산/경남	55.1	44.9	0.0
	강원/제주	70.0	19.9	10.1

용역 건당 평균 계약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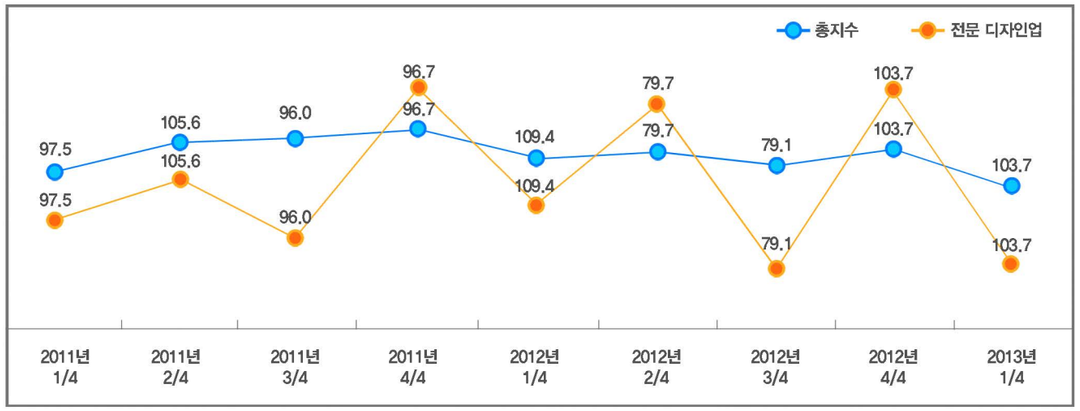
■ 용역 건당 평균 계약 금액으로는 '1000만원 미만'(35.8%)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2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25.2%)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1000만원 미만'은 기타전문디자인(53.1%)과, 강원/제주(57.9%) 소재 업체가 가장 높게 나타남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1억 미만	1억 이상
전체		35.8	24.5	25.2	7.7	6.8
업종	제품	22.9	32.6	32.2	7.2	5.1
	시각	46.2	25.3	22.0	5.4	1.1
	인테리어	21.4	18.4	31.1	13.7	15.4
	기타전문디자인	53.1	18.0	13.1	5.4	10.4
규모	9인 이하	38.4	25.7	24.6	6.9	4.4
	10인 이상	14.7	14.9	30.5	13.8	26.1
권역별	서울	33.2	22.2	28.9	7.9	7.8
	경기/인천	29.9	32.6	21.5	10.4	5.5
	대전/충북/충남	43.7	32.0	18.3	4.0	2.0
	광주/전북/전남	49.2	15.7	19.9	5.7	9.4
	대구/경북	41.2	37.4	14.4	3.4	3.7
	부산/울산/경남	44.8	27.3	16.6	7.7	3.6
	강원/제주	57.9	6.0	20.6	7.4	8.1

4. 전문디자인업 생산지수 변화 추이

전문디자인업 생산 지수 (불변지수)



■ 2013년 1/4분기 전문디자인업 생산지수는 87.9p로 나타남전분기 111.0p 대비 23.1p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분기 95.5p대비 7.6p 하락. 서비스업 총 생산지수는 102.9p로 전분기(107.6p) 대비 4.7p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분기 102.1p와 비슷한 수준임

› 전문디자인업의 1분기 평균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한 듯 보이나, 3,4,5월(4,5월은 잠정치) 지수는 각각 121.7p, 99.7p, 109.7p로 나타남

※ 2012년 4분기까지 전문디자인업 생산 지수 및 서비스업 총 생산지수는 2005년을 기준(100)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나 2013년 1분기 부터는 통계청의 '서비스업동향 통계개편(2013.02)' 으로 인해 전체 지수가 2010년 기준으로 조정됨

◆ **서비스업생산지수**

서비스업의 성장세를 가늠하는 핵심지표로서 서비스업 전체 및 개별업종의 생산 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개별 업종의 상대적 중요도인 부가가치 기준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화한 것. 국가의 경제정책 및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소의 서비스 동향분석 및 연구자료, GDP 추계 자료 등으로 널리 활용

출처: KOSIS

II. 2013년 2/4분기 현황 및 3/4분기 전망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

1. 디자인 업계 이슈

제조업계, 세계 3대 디자인어워드_IF & Red dot & IDEA 석권 디자인업계에 긍정적 영향

ⓒ제주의소리

제주 한라수, 독일서 열린 '레드닷 디자인어워드 2013' 제품디자인 부문에서 '레드닷' 수상, 세계적 디자인으로 인정받으며 세계진출 '본격'

제주도개발공사는 프리미엄급 먹는샘물 '한라수'가 지난 1일 독일 에센(Essen)시 디자인 뮤지엄에서 거행된 세계적 권위의 '2013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에서 '레드닷' 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힘

'한라수'는 용기디자인으로는 유일하게 본상을 수상

이번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제품디자인 부문에는 전 세계 54개국 1865곳에서 응모한 4662점의 제품이 출품돼 최고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음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전문 심사위원들이 각국이 출품한 하이퀄리티의 제품디자인을 평가한 만큼 수상의 영광을 안은 제품은 세계적인 디자인으로 인정받게 됨.

자료: 제주의소리 / 13.07.07

ⓒ(주)마이스터

만도 전기자전거 풋루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대상

만도풋루스는 전 세계 54개국의 1865개 기업이 출품한 4662개 제품 가운데 최우수상인 '베스트 오브 베스트' 수상작으로 선정 만도풋루스를 비롯한 상위 1.2%만이 이 대상을 받음

'체인 없는 전기자전거'로 통하는 만도풋루스는 국내 자동차부품 선두주자인 (주)만도의 기술력에 유명 산업디자이너, 마크 샌더스(Mark Sanders, 영국)의 디자인 철학이 결합한 신개념 도심형 개인이동수단(PM)임

자료: 머니투데이 / 13.07.02

포스코LED,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13 수상'

포스코LED (대표 조봉래)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13'에서 자사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2개 제품이 수상했다고 밝힘

이에 따라 포스코LED는 미국 '굿디자인 어워드 2011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12 ',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12 ' 등 세계 3대 디자인상을 석권, 이 외에도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에서 지난 2년간 총 10회 수상을 기록함

자료: 전자신문 /13.04.03

삼성전자, 'IDEA(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s) 2013 '에서 또 한번 최다 수상 영예

삼성전자는 '미국 산업디자이너협회 (IDSA)'가 주관하는 'IDEA 2013'에서 금상 5개, 동상 4개 등 총 9개의 상을 수상 2009년 이후 5년째 'IDEA' 최다 수상 기업 자리를 차지하며 디자인 파워를 과시

자료 : 헤럴드경제 /13.07.02

블루버드, 산업용 태블릿 BP70 'IDEA'에서 Finalist로 선정돼

블루버드의 산업용 패드 시리즈는 이미 IF Design Award 에서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사용성과 혁신성 면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이번 수상제품인 BP70역시 광범위한 사용자 환경 연구를 통해, 다양한 산업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디자인되어 좋은 평가를 받음

블루버드 관계자는 "이번 IDEA Design Award 수상으로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석권하며 블루버드의 제품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평가함

자료: SCM Journal / 13.06.10

백화점 점령한 中企 디자인 파워_국내 중소 가구업체 디자인벤처스 중소 그릇업체 이도, 주방용품업체 네오플램

디자인벤처스_비싼 재료 사용, 저렴한 가격, 차별화된 디자인이 경쟁력

- 대량생산이 가능한 저렴한 목재를 주로 사용했던 90년대 가구업계의 흐름과 반대로 "장인의 마음으로 명품 가구를 만들겠다"는 생각에 디자인연구소를 세워 작은 손잡이 하나까지 전부 설계해 제작, 고급 목재 사용
- 고가(高價)의 제품들이 경쟁하는 백화점에서 세련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유명 수입 브랜드를 물리치고 매출 1위를 차지(현대백화점). 롯데와 신세계, 갤러리아 등 전국 50여개 백화점에도 입점해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

이도_제품을 예술에 가깝게 디자인, 미국 뉴욕 등 해외에도 진출할 예정

- 도예가 이윤신 대표는 '예술은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작품이 아닌 '제품'을 만들기 시작함
- 우리나라는 고려청자, 이조백자 등 훌륭한 도자기 문화와 기술을 바탕으로 도자기를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했는데, 일제 시대 이후 감상에만 그치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등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 함
- 2011년 7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은 지난해 13억원으로 73%나 성장
- 내년에는 미국 뉴욕 등 해외에도 진출할 예정

네오플램_전 세계 점유율 1위 차지하며 60여 개국에 판매

- "한국 특성에 맞는 주방용품을 만들어 판매하자"는 생각에 2006년 설립
- 나무와 플라스틱 제품만 있던 도마에 주목해 항균 물질과 플라스틱 원료를 배합해 도마 속까지 항균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품
- 해외 판로 개척에도 힘을 쏟아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 60여개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음. 월평균 판매량은 50만개 정도. 미국 최대 대형마트인 월마트에서 판매되는 도마의 40%도 네오플램이 OEM(주문자상표부착)으로 납품한 것

자료 : 조선일보 /13.07.01

국내디자인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6개 디자인기업(디자인넥스트, 리드디자인, 세올디자인컨설팅, 엠아이디자인 엔에스디자인, 구디스)중국 최대 규모 박람회 캔톤페어(Canton Fair)에 참가

중국 제조 기업들의 제품 특화를 위한 투자가 디자인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KOTRA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국내 디자인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 최대 규모 박람회인 캔톤페어(Canton Fair)에 참가
이번 한국관은 국내 디자인업체의 중국시장 진출의지를 반영해 마련됐으며, 우리 기업들과 중국 바이어간 교류의 장을 마련함

중국은 현지 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디자인에 대한 대대적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음. 또 중국 내 제조 기업들 역시 치열해진 경쟁 속에 제품 특화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어 향후 중국내 디자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디자인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정상급 가전, IT기기를 통해 고평가되고 있으며 아직 중국에 대한 일본 및 구미 계 디자인의 진출이 본격화 되지 않아 블루오션으로 꼽히고 있음

자료 : weeklytrade / 13.04.15

감성품질디자인센터, 제품디자인 원스톱 서비스 진행, 정량적 디자인 평가항목을 만들어 디자인 표준화 추진 정작 지원이 필요한 중소 · 중견기업은 많이 찾지 않아, 실제 지원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1%도 안돼 인식전환 시급

감성품질디자인지원센터는 제품 표면처리디자인 관련 장비와 전문 노하우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제품 디자인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해옴

지케이(금속소재 케이스 전문 중소기업)는 센터와 함께 표면처리디자인 기술을 연구, 삼성 아티브PC프로에 부품을 적용 · 납품해 20억원 이상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둠
리움(2011년 창업)도 스마트폰용 액세서리 개발에 성공해 2012년 매출이 전년 대비 5배가 늘어남

대기업 또한 감성품질디자인의 중요성을 깨닫고 휴대폰, 생활가전 등 제품군별로 CMF (Color · Material Finish)팀을 구성,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센터 측은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의해 올해부터 정량적 디자인 평가항목을 만들어 디자인 표준화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세움

박창해 감성품질디자인지원센터장은 “정량적 표준화의 부재로 기업들이 소비자의 감성적 표현 뒤에 숨겨진 고객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디자인 표준화가 이뤄지면 개발과정의 오류나 잦은 수정이 줄어들어 개발기간이 단축되고 소비자를 자극할 수 있는 제품 개발도 쉬어진다”고 강조함

◆ 감성품질디자인이란
과거에는 제품의 기능과 조형에 해당하는 이른바 '실루엣'만 중요시
감성품질디자인은 조형디자인에 소재, 패턴, 촉감 등 다양한 표면처리디자인을 합친 개념

◆ 감성품질디자인센터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남도청, 한서대학교의 지원으로 설립된 특성화 연구기관
2008년 설립돼 지난 5년간 진공증착, 코팅, 레이저 각인기, UV코팅 스프렝 등을 갖춘 표면처리장비실과 전시실, 출력실 등을 통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

자료 : 전자신문 / 13.04.22

2. 디자인 정책 이슈

산업부, 올해부터 디자인기업역량강화 사업을 기업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 맞춤형 지원으로 글로벌 디자인기업 키운다

산업부는 앞으로 매출액과 전문인력, 신규채용, 전문분야, 지원금 등을 기준으로 기업을 창조, 선도, 글로벌 기업으로 구분한 뒤 기업군별 규모와 역량차이를 고려해 정부지원금과 과업범위를 맞춤식으로 차등 지원

지원 예산규모 (2011년 40억원, 2012년 80억원) 가 작고 완전경쟁체제인 디자인 산업 특성상 일부 상위 기업만 수혜를 보게 돼 성장잠재력과 성공가능성이 높은 중소 디자인 전문기업에게는 불리했던 점을 보완

구 분		창조기업	선도기업	글로벌기업
지원기준	매출액	5억원 미만	5~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전문인력	5인 이하	6~10인 이하	11인 이상
	신규채용	가점 부여 (3점)	1명 의무 (추가1명당 3점)	2명 의무 (추가1명당 3점)
	전문분야	1개분야	1~2개 분야	2개분야 이상
	지원금	1.5억원 이내	3억원 이내	5억원 이내
자유공모 (과업범위)		〉 컨셉설계 〉 디자인 개발 〉 워킹목업 제작 〉 산업재산권출원 〉 사후관리	〉 전략 수립 〉 컨셉 설계 〉 디자인 개발 〉 시제품 제작 〉 산업재산권출원 〉 사후 관리	〉 전략 수립 〉 컨셉 설계 〉 디자인 개발 〉 시제품 제작 〉 산업재산권출원 〉 해외시장 개척 〉 사후 관리

ⓒ산업통상자원부

◆ **디자인기업역량강화 사업**

정부가 창의와 혁신을 갖춘 디자인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상품기획, 디자인개발, 생산, 유통 등 비즈니스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자료 : 뉴스토마토 / 13.05.21

산업부–디자인진흥원, 디자인 인력을 중소 · 중견기업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2013년 중소 · 중견기업 디자인인력지원 사업'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실시

디자인을 통해 중소 ·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디자이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 4억원을 들여 약 10개사에 20명 내외의 디자이너를 지원

지난 3월 중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10개사 모집에 87개사가 신청했고, 인력 16명 모집에 51명이 지원하는 등 높은 경쟁률을 기록함. 지난 2개월간 기업과 디자이너를 선정 · 매칭했으며, 이날 참여기업과 디자이너들이 모여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함

자료 : 아시아경제 /13.06.11

산업부, 디자인학과 학생들의 취업을 확대하고 융합형 디자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2013년 디자인인력양성사업' 세부 추진계획 마련

▲융합형 디자인대학(원) 육성 ▲코리아디자인멤버십 ▲고용연계형 디자인인력양성 ▲패키징 인력양성 등 4개 프로그램으로 추진되며 통합적 문제해결 능력과 실무적 역량을 겸비한 디자이너 육성을 목표로 함

융합형 디자인대학(원)은 디자인과 경영학, 공학 등 여러 학문을 융합한 전공학위를 개설 ·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현행 14개 대학(원)을 17개로 늘리고 공과대학 중심의 엔지니어링 디자인대학(원)을 선정하는 등 학교별 특성화를 강화할 예정

◆ **융합형 디자인대학(원) 육성 계획도** ⓒ산업통상자원부

코리아디자인멤버십은 대구 · 경북디자인센터 등 지역디자인센터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해 실습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세계 유명 전시회 참가, 지식재산권 등록, 외부 전문가 특강 · 멘토링, 장비사용 공간 24시간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

고용연계형 디자인인력양성은 실무중심의 교과과정 운영, 산학프로젝트, 인턴십 등을 지원하고, 패키징 인력양성사업은 제품 포장을 공부하는 패키징 학과뿐 아니라 식품, 화공, 소재, 물류 등 관련 학과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 인턴십을 제공할 방침

자료 : 뉴스토마토/13.06.13

한국디자인진흥원, 1인 또는 소규모 디자인 기업의 비즈니스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온라인 디자인 비즈니스 플랫폼 '디자이너마을(village.designdb.com)'개설

◆ 디자이너마을은

– 규모는 작지만 능력 있는 디자인 기업들을 보여줄 뿐 아니라 대부분 영세한 신생 디자인 기업이 믿을 만한 고객사를 찾는 것을 지원함

– 2010년 문을 연 온라인 비즈니스 공간인 디자이너마을은 디자인 창업, 마케팅, 입찰, 구인구직 등 종합적 디자인 비즈니스와 정보교류가 가능함

– 분야별, 회원 유형별, 유사 프로젝트 경험에 따라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튜디오 통합검색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디자인 스튜디오를 쉽게 검색할 수 있음. 단순 정보 검색뿐 아니라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바로 의뢰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춤

– 의뢰 · 제안 · 관리 등의 온라인 비즈니스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디자인 비즈니스 수요자와 공급자 간 빠르고 간편한 디자인 비즈니스를 가능토록 함

– 디자인진흥원이란 공적 기관을 통해 ' 인증' 받은 디자이너가 되면서 소규모 디자인 업체라도 규모 있는 고객사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됨

– 직접 우수 스튜디오를 발굴하고 목업(mock-up, 실물크기 모형 제작)과 지적재산권 지원 등 입주기업의 디자인 역량 강화도 지원

자료 : 매일경제 /13.06.27

산업부,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우수디자인 해외진출 지원사업' 시행

◆ 지원대상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이 있으나 해외에 진출하기 힘든 개인이나 1인 창조기업 디자인전문회사 등

◆사업목적

– 지원 기업이 해외유통망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수출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방침

◆사업개요

– 올해 총 18억원의 예산을 투여 해외 전시회 참가와 바이어 연결 · 상담, 해외 온라인 마케팅 등을 지원할 계획

– 단순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에서 벗어나 해외 바이어의 발굴 및 DB화, 지속적인 온 · 오프라인 접촉 등 해외 마케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품의 온라인 마켓 홍보도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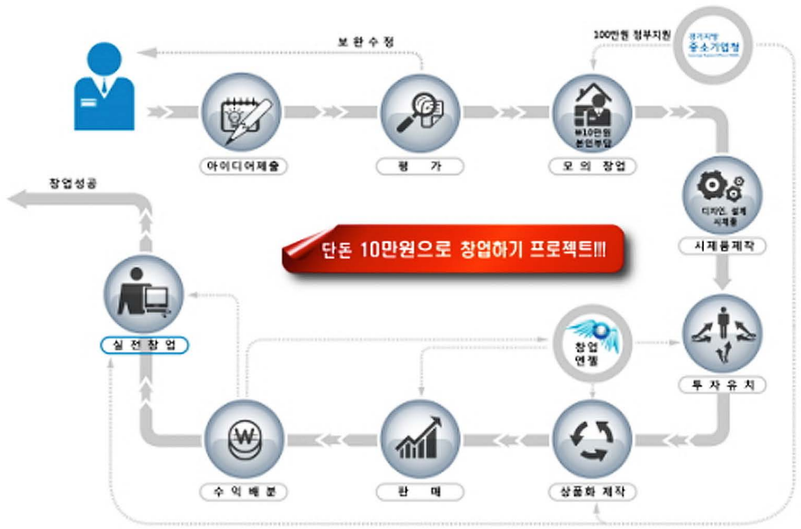
–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의 경우에도 현지 시장수요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전시품목과 기업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수출 가능성을 높이는 등 사업수행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

– 실제 오는 10월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 우수디자인 · 제품전시에는 IT기술과 디자인 접목한 고가 제품으로 중국 베이징디자인위크(10월)과 홍콩 비지니스 디자인위크(11월) 등에는 문구, 주얼리 등 생활용품 중심으로 기업의 참가를 지원할 예정

– 이밖에 국내 디자인 노하우를 아세안국가 등에 전파하는 디자인 나눔 사업을 올해부터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해외 디자인 비즈니스 교류'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

자료 : 아이뉴스24 / 13.06.2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소액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돈 10만원으로 창업하기' 프로젝트 추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나 돈과 경험이 부족해 실행하기 어려운 대학생 등 예비창업자가 소액으로 모의 창업을 한 수 실전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예비창업자가 10만원만 부담하면 정부에서 100만원을 지원받아 창업 아이템을 우선 시제품으로 제작할 수 있고 이후 중소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창업 엔젤에게 창업 IR을 통해 투자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음

투자유치에 성공한 예비창업자는 경기중기청과 멘토의 도움으로 제품의 제작과 판매가 가능. 창업 IR시 제시한 목표 매출을 달성한 예비창업자에게는 1,000만원의 창업자금, 사무공간, 제작장비, 멘토 등으로 구성된 'All-in-One 창업 패키지' 를 지원, 실전 창업을 도움

또한 이 사업은 무모한 창업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창업자가 직접 제품을 팔아보는 경험을 모의창업단계에서 제공하기도 함
참가 대상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이내의 창업기업으로 사업기간은 4월 1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이어짐

자료 : DesignJungle / 13.04.17

Ⅲ. 부록1

0. 영국 디자인산업의 성장 비결

영국기업, 디자인에 투자해 기업브랜드 및 상품 경쟁력 강화
디자인산업분야 고용인력 높이고, 예술디자인 대학에서 창의성 길러 인력 확보

◆ 영국 디자인산업 및 영국 기업 디자인 분야 소비지출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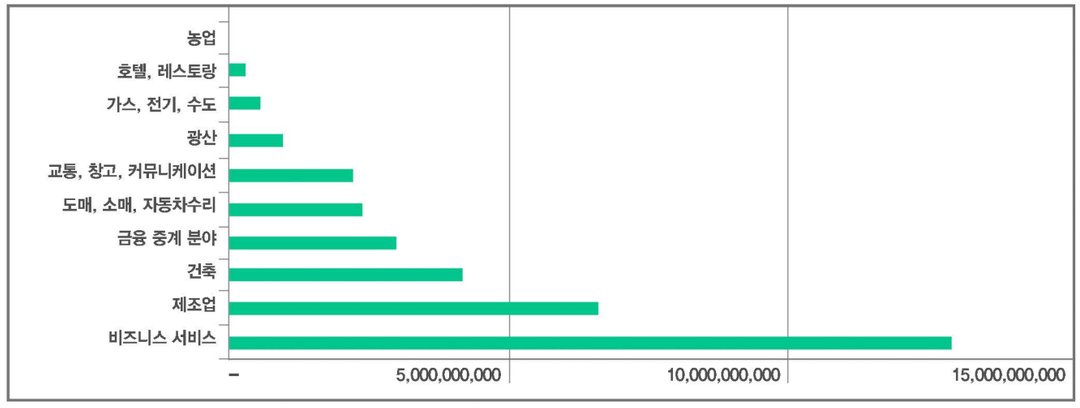
- 영국의 디자인은 335억 파운드 규모로 영국의 GDP에 약 2.4% 기여. 영국 디자인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은 총 23만2000명으로 인하우스 디자이너는 8만3600명, 디자인 컨설턴트 소속은 8만2500명, 기타 프리랜스 인력은 6만5900명임

- 분야별 디자인 종사자는 주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62%)과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48%) 분야에 집중돼 있음. 그 외 제품 디자인은 약 11%, 인테리어 디자인은 약 16%, 패션과 텍스타일은 2%임

- 디자인 컨설턴트는 10명 이내의 디자이너로 구성되며, 약 78%의 디자인 컨설턴트 회사의 1년 매출액은 약 50만 파운드(약 9억3000만 원)

- 영국 임페리얼 대학교(Imperial College London)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즈니스, 제조업, 건설 분야에서 각각 디자인 분야에 약 260억 파운드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비즈니스 서비스는 약 133억 파운드로 디자인 분야에 지출이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은 69억 파운드, 건축은 41억 파운드를 각각 지출함 (참고: 인하우스 디자인은 제조업이 약 30억 파운드 규모로 가장 많이 지출함)

  – 디자인 투자 효과는 약 4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15%의 기업만 산업디자인을 소비

◆ 영국 기업 분야별 디자인 소비통계 ⓒBIS, 코트라 런던 무역관 종합